



아름다운주님의공동체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사랑과 나눔의 BCJC
균등과 균형의 교육가치를 추구하는 다림교육

2026년 3월 15일 | 사순절제4주

자녀 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니다.(요한일서3:18)

기독교대한감리회 아름다운주님의교회 공동사역자 김영석 김진형 김효정 신주환 오미숙 이학재 천혜영 한창천

목장을섬기는목자 박정수 신주환 오세현 이상숙 최경찬



2026 아름다운주님의교회주일공동체에배

의심하며 두드려도, 기적의 문은 열립니다.

2026.3.15.

BCJC 소식

환영합니다 | 2026년 사순절 네번째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한 모든 가족들의 발걸음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섬기는손길들 | 오늘도 공동체를 위해 섬기고 나누는 귀한 수고의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주일학교를 섬기고,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섬기는 귀한 헌신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공동체 식탁을 마련해 주신 에그목장에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목장모임안내 | 공동체 식사 후에 목장모임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눔 속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특별목상안내 | 오는 고난주간(3/30~4/3) 특별목상으로 아침을 엽니다.

축복의말씀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26

사순절제4주

아름다운어린이예배

매주일오전11시 | 교회학교실

2026고난주간특별목상 2026.3.30~4.3

나의해방일지

목장모임 | 매주일오후1시 | 교회모임실

의심하며 두드려도, 기적의 문은 열립니다.

사도행전 12:12~16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네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 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목장나눔

나눔1. 혹시, “에이, 설마 되겠어?” 하고 반신반의하면서 시도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덜컥 이루어져서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나요? 가벼운 일상에 피소드를 나눠주세요!

(청소년용 나눔 : “난 어차피 안 될 거야...” 하면서 시험공부나 대회를 포기하려고 했다가, 그냥 눈 딱 감고 끝까지 버텨서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었던 적 있어? 그때 일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나눔2. 우리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정말 100%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나요? 진짜 ‘이게 될까?’라는 의심이 전혀 없어요?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피어오르는 의심 때문에 “내 믿음이 부족해서 안 들어주시나 봐”라며 자책해 본 적 없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보세요.

(청소년용 나눔 : 우리는 기도할 때 단 1%의 의심도 없어야 하나님이 기적을 톡 떨어뜨려 주신다고 오해할 때가 많아. 솔직히 기도하면서 속으로 ‘근데 이게 진짜 될까?’ 하고 의심해 본 적 있지? 그때 기분은 어땠어?)

나눔3. 예루살렘교회 교인들의 베드로를 위한 기도를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그들은 밤새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정작 베드로가 자신들의 눈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혹시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상식과 경험의 상자 안에 가두어 놓고, 응답의 크기를 내 마음대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까요?

(청소년용 나눔 : 교회 어른들이 밤새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해 놓고, 막상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니까문 열어준 여자아이한테 “네가 미쳤구나!”라고 했다. 좀 웃기지 않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살려주시니까 ‘왜요?’라고 묻는 것과 같지 않아? 그런 모습에서 너희는 어떤 생각이 들어?)

나눔4. 내 상태가 완벽하지 않거나 의심이 생기면 “어차피 나는 믿음이 없어”라며 영적인 시도조차 포기해 버리는 ‘알랑한 완벽주의’가 우리 안에 숨어 있대요. “며칠 하다 말바엔 큐티(QT) 시작도 안 할래”처럼, 완벽주의 때문에 시작조차 못 하고 있는 신앙의 도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에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나요?

(청소년용 나눔 : “어차피 작심삼일 될 텐데 성경 읽기 시작도 안 할래”. 이렇게 내 연약함 핑계를 대면서 마땅히 해야 할 도전을 피하는 걸 ‘알랑한 완벽주의’라고 한대. 네가 완벽하게 못 할까 봐 핑계 대고 피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솔직하게 고백해 보자!)

나눔5.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두드림’ 때문이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나요? 내 마음속에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내가 지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두드려야 할 내 삶의 ‘견고한 쇠문’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청소년용 나눔 : 하나님이 감옥 문을 부수고 기적을 베푸신 건, 사람들이 완벽하게 믿어서가 아니라 의심하면서도 다락방에 모여 계속 기도했기 때문이었어. 내가 지금 좀 의심스럽고 흔들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떼쓰고 싶은(?) 기도 제목은 뭐야?)

나눔6. 기적은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두드림에서 시작됩니다. 내 감정이나 영적인 상태가 완벽할 때만 앞드리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번 주, 흔들리는 마음 그대로 묵묵히 두드릴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용 나눔 : 내 기분이 좋을 때만 기도하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 마음이 뜨겁든 차갑든 핑계 대지 말고 무조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대. 내가 기도나 큐티를 빼먹을 때 가장 자주 대는 단골 핑계는 무엇이고, 이번 주엔 그걸 어떻게 이겨낼까?)